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 1051
전화(967) 8133

(每月 中旬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最大의 봉사
1,最大의 협동
1,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2—5895
967—8133 사무실

協會 산하組織內實化促求

○… 協會창립 18주년(7.10日)을 맞아 연재하기 시작한…○
○…題號는 그동안 溫故之新 行政指導力의 強化, 選別栽培로…○
○…所得向上, 自體出荷 生藥材의 표준화 試案마련등으로 이…○
○…어져 갔으나 여기에서 細部品目別 규격화는 協會理事會…○
○…심의 및 總會議決을 받아야 하는 前提가 있기 때문에 일…○
○…단 留保조치하였음으로 諒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권태세 補完으로 生藥材 需給調節에 기여토록

◎系統出荷 積極참여로 내실화 促進…

제약회사들이 生藥材를 原料로한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는 까닭에 其需要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때를 활용하여 自體商品價値 향상과 組織力에 의한 계통출하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면 일부 商人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品貴現象과 價格등락의 악순환을 축자적으로 배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최근들어 감시가 소홀한 취약地域에 사이비私團體들을 만들어 生藥種子種苗등에 관한 跨張跨大的인 선전으로 生産農家들을 현혹케 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民願이 빈번한 現實을 감안할때 우리 協會組織이 하루속히 伸張되어 주변의 不條理 要素들을 自滅케 하는 힘의 축적이 절실히 要望되는 때라고 하겠다。

때에 즈음하여 農水産當局에서도 生産農家所得增大를 목표로 하여 여러製藥會社들이 많이 需要로하는 數個品目을 選別하여 生産農家들과의 契約栽培를 유도하는 方案강구와 地域特作目 生産에 대한 支援擴大, 그리고 協會組織을 통한 계통출하 實績增大및 共販場 運管 活性化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니 우리로서는 이를 受任할수 있는 態勢를 早速히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組織內의 一員이면서도 불평불만을 일삼는 會員이나 간판만을 利用하려는 모렴치한 會員, 零細性을 탈상 자하만 하는 會員, 個人利潤만을 追求하는데 급급한 會員들도 두가 심기일전하여 그야말로 公益團體로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自體內實化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組織擴大로서 會勢伸張… 80年度 전후를 소급해 보면 今昔之感이 있다。당시 만해도 傘下地域 分所組織은 75~76個所에 불과하여 비교적 적은 運用費마저도 充當하기 어려워 항상 풍전등화를 비유해 왔지만 오늘날 2倍에 달한 分所組織으로 擴充되어 상당한 면모를 갖춘 團體로 伸張되어 왔다。

여기에 몫은 行政區域이 큰 嶺南地方의 기여도가 장크다고 볼으로 여타지방도 좀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봉사정신을 발휘한다면 協會에서 目標하는 90%의 組織網을 確保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따라서 新年度에는 가장 취약점이 많은 경기, 호남地方을 대상으로 集中的인 대책을 추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組織網의 擴大는 會勢伸張의 活力素

◎奉仕意識함양으로 信賴받는 協會 定着化…

最近 生藥分野 去來者들의 民願을 검토해 보면

・위탁판매를 의뢰하였을 경우 資金회전이 너무 낮다。그래서 多少의 價格差가 있더라도 個人商社를 찾는것이 오히려有利하다。

・生藥種子 種苗등의 信賴度는 一般商人과 別다를 바 없다。

・生藥分野에 만연하고 있는 과장과대적인 선전광고등을 統制하여 달라

・協會系統에서 구입한 種子、種苗代는 一般商社들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協會명의 남용자들이 現地를 巡訪하며 판매하는행위등을 지적함。

・生産의욕고취와 農家所得을 도울수 있는 계약栽培實施를 요망하고있다。

・수개 分事務所는 團體로써의 活動이 金然미약하여 存在價値를 의심하고 있다。

・團體로써의 積極的 指導活動과 奉仕的 자세를 좀더 바라고 있다。

・全般的으로 不親切하다는 評을 하고 있다。

※2000년대 先進祖國의 目標達成은 都・農間 均衡된 經濟發展을 이룩하지 않고는 沙上의 누각에 불과하다。

아직도 현격한 빈부의 차를 피부에 느끼면서 우리들은 때로는 좌절하고 자학하고 하였다가 다시 일어나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努力해 왔다。그래서 協會는 零細하면서도 오늘날 18年의 經歷을 쌓아왔다。이제는 간판만을 믿고 찾아드는 손님을 기다리던 무사안일을 탈피하고 과감히 生産指導와 販路개척에 뛰어들어 자급자족할 길을 찾아야 한다。불평불만은 끝이 없고 자신의 낙후를 면치못할 것임을 再認識하여 農村發展의 指導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를 새로히 하여 會員으로서의 奉仕活動을 증진한다면 不遠 信賴받는 協會로 定着化될 것이다。

(편집부)

農水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캠페인

국민식생활개선 지침을 적극 실천하자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정한 『국민식생활개선지침』이 제6회 세계식량의날을 기념하여 지난 10월20일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7개 항목으로 된 이지침은 그동안 동본부가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벌여온 식생활개선운동의 실천방향과 시행요목을 하나의 헌장으로서 집약 공포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갖는 선언적 의미는 퍽 크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은 골잘 건강식과 영양식을 찾게되고 일부 계층에서는 과소비와 성인병 문제가 우리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6년연속 풍년의 결과 주곡인 쌀은 남아도는데도 밀가루、옥수수등 외곡도입은 늘어나 이 때문에 외화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생활개선을 실천함으로서 국민의 균형된 영양섭취를 꾀하되 그것은 더까지나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량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소비절약 정신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이번에 공포된 식생활개선지침이 영양적인 측면과 식품적인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 그밑바탕은 국내부존 식량자원을 적극 활용하는데 있다고 강조한 점은 이미 발표된 선진외국의 식사지침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자』는 균형식에 관한 것이다。식단을 짤때 5가지 기초식품군에 속한 식품이 고루 들어있는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편식을피하고 다양성있고 균형된식사를 하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겠다。

둘째、『축산물、수산물 콩류를 좀더 먹자』는 영양적으로 이야기하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자는 것이다。식품중에는 육류、양류、우유류、어패류、콩류 등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양이 적기는 하나 쌀보리등 곡류에도 들어있다。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약 80g이다。

세째、『지방을 알맞게먹자』이상적인 지방섭취량은 하루에너지 섭취량의 20~25%좋다고 한다。한국인의 1일 1인 에너지섭취량을 2、100Kcal로 보면 그중 420Kcal을지방으로 섭취하면 된다。이것을 지방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50g이된다。동・식물성의 비율은 40대 60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네째、『우유를 많이마시자』우유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그리고 많은 양의 칼슘과 리보플라빈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영양식품이다。현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70이 넘는 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아크、영국、스위스、카나다、미국등은 한사람이 평균 1년에 100kg의 우유를 먹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장수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본도 3.5・7kg을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3・1kg에 머물고 있다。우유는 정장작용을 하고 뇌나 신경의 발육에 좋고 위알、위궤양의 예방치료에도 좋다고 한다。우리들은 꼭하루에 우유 한컵이상씩을먹도록 해야겠다。

다섯째、『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자』인데 소금을 과잉섭취하면 고혈압、동맥경화、심장병등을 유발하게 된다。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1일평균 소금섭취량은 약 20g이며 농촌에서는 30g까지먹고있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하루 10g이하를 권장량으로 정하고 있고 선독에서는 5~8g、미국에서는 5g이하로 정하고 있다。우리는 우선 하루 10g정도로 정해서 차츰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우리나라에서나는 식품을 많이이용하자』인데 양곡자급도를 높이고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량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우리나라의 전체 양곡자급도는 65년에 94%였던 것이 85년에는 49%로 떨어졌는데 우리는 소비절약을 생활화 하므로써 양곡자급도를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일곱째、『식생활은 즐겁게 하자』는 식사문화에 관한 것이다。요즘같은 산업화 사회에서 핵가족화 경향이 심한 실정에서는 가족구성원끼리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고유의 식사문화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다。우리는 즐겁게 식사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애정어린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식생활개선지침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식사생활을 견실하고 알뜰하게 꾸려 나감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人事發令

〈免〉

▲강원도 인제군 사무소장=이규성 86년 11월 8일부
▲충남 금산군 사무소장=정영석 86년11월12일부
▲전북 이리시 사무소장=정오현 86년11월12일부
▲전북 익산군 사무소장=박상록 86년11월12일부
▲전북 순창군 사무소장=최영모 86년11월12일부
▲부산시 북구 사무소장=박청정 86년11월12일부
(정관 제7조에 의거)
▲제주도 남제주군 사무소장=김성호(사망)
▲대구시 서구 사무소장=금석우(사망)
▲전남 순천시 사무소장=배상원(사망)
▲강원도 강릉시 사무소장=최이규 86년11월8일부(의원면직)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부산직할시 지부

지부장 박길부
진구사무소장 권순직
동구 〃 장희열
북구 〃 노태석
중구 〃 이차호
영도구 〃 최상용
동래구 〃 이현택
남구 〃 김승
사하구 〃 최맹호
해운대구 〃 강차순
금정구 〃 김중신
부산시 공판장장 오주수

⊙제주도 지부

지부장 김동균
북제주군 사무총장 강경휴
서귀포시 〃 임철

1986년 11월 20일